

보도해명자료 (‘16.9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주형환장관실 운영경비 예산보다 11배 집행
(‘16.9.26, 아시아 경제 등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 장차관이 9월까지 장차관실로 허용된 예산 각목명세서상 기타운영비 규모(연 1,080만원)의 11배 수준인 1억 2,200만원을 지출
 - 1,08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근거에 대해 산업부는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설명하나,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설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① 장차관 운영비와 ②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지출임
 - 비서실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을 지출하는 데 반해, 축조의금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및 축조의금으로 사용하는 지출임
 - 특히 축조의금의 경우 실·국장 명의로 지출하지 못하는 지출로서 조직을 대표하는 장차관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 - 장차관실이 금년도에 집행한 기타 운영비는 예산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무실 운영비와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, 축조의금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총합한 규모임

※ 문의 : 산업부 운영지원과 김정희 과장(044-203-5050)
여영섭 서기관(044-203-5080)